

“제주특별자치도 지향점 새로 정립을”

오영훈 도정 출범 <1>제주도 비전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등 성장에 긍정 역할
난개발·기업이익 독점 등 부작용 초래는 문제
오 지사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

이달 1일 오영훈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했다. 도민생활 또는 지역발전과 연결되는 해결 과제의 주요 현안들을 5회에 걸쳐 정리한다. 제주도와 정부,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사안들이다.

20년 전 제주도의 지향점은 사람과 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국제자유도시였다.

▶▶관련기사 2·3면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휴양 도시·첨단 지식산업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어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
도를 출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위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

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등 각종 특례가 도입됐으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돼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전국 연평균인 5.8%이었던 제주는 7.0%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115만평에 조성된 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7개교와 영어교육센터, 주거 및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으며, 학생수 9000명을 포함해 정주인구는 2만명에 이르고 있다. 귀족학교 탄생이란 부정적인 여론도 있으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해 8250억원의 외화를 끌어들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14년 7월 원희룡 전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 전 지사는 201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홍콩과 싱가포르 발전모델은 제주실정에는 맞지 않다며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중단했다. 현재일부 정당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 도민의 삶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농지 구입이 힘들어졌고 관광객 증가로 인



오영훈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일 제주시 민속자연사박물관 앞마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 교통 혼잡,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특례를 삭제한 '국제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의위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일 본보와 가진 특별대담에는 “외자 유치와 이를 통한 대규모 관광 개발에 중점을 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과잉 관광으로 인한 폐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방향을 바꿔야 한다. 도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방정부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그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131
잠정집계 3일
 <17시 기준>
누적 23만9804



17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일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으로”

17대 김광수 교육감 새 교육지표 제시하며 임기 시작
'소통·학력 신장' 50개 과제… 공약실천위 이달 말 구성

“저는 제주교육을 새롭게 바꾸나라 라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받들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17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했다. 8년 만에 바뀐 제주교육 수장인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대회의

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은
일성으로 제주도민, 교육가족들과
첫인사를 나눴다. >>>관련기사 4면

김 교육감은 임기 동안 추진할
다섯 가지 교육 방향으로 소통을
통한 행복한 제주교육 만들기, 학
력 신장과 학력 격차 해소 노력, 아
이들에게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
한 교육 강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와 하고 싶은 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넓은 마
련, 학교의 안전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정책 추진 시 계획의 입안 단

김 교육감은 취임식에 앞서 도교
육청 중앙현관 앞에 새로운 교육지
표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내걸었다. 취
임식 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불어 함께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
육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 개편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
형 교육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건
강한 학교 환경 조성 >4차 산업혁
명 시대 대비 제주형 미래교육 강
화 등 5대 영역 50개 세부과제의
공약을 발표했다.

게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어 대화를 통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단계까지 모든 칸막이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제주교육을 큰 틀에서 소통과 협력 신장, 두 가지로 설정해 이끌겠다"며 "도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학부들 모두가 안심

이 중 학력 향상 방안으로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표본조사보다는 정밀한 도구를 활용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학력진단 결과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제주교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달 말 4년 동안 운영될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꾸리

전선희 기자

진선희기자